



제2장 인문환경

제1절 인구

1. 해방이전의 인구 및 인구분포

1) 고려 및 조선시대의 인구와 인구분포

사람들이 언제부터 광양에 거주했고, 최초로 어느 정도 규모의 취락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광양의 봉강면 석사리와 옥곡면 대죽리, 옥룡면 용곡리 등에서 구석기의 유물이 발굴되고, 진월면 오사리 돈탁마을과 진정리 중산마을의 패총에서 빗살무늬토기와 패각 등의 신석기 유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부터 광양에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지석묘가 광양읍 덕례리와 용강리, 세풍리, 옥곡면 원월리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청동기 시대 이후에는 해안과 가까운 구릉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광양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는 한반도에서 기후가 가장 온화하여 사람들의 거주에 유리하며, 해안과 인접해 평야가 발달하고, 중국 및 일본과 왕래가 유리하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



광양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는 한반도에서 기후가 가장 온화하여 사람들의 거주에 유리하다.

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신뢰할만한 인구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간이국세조사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구조사는 정치·경제·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일찍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고려시대의 호적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내용도 달라졌다. 즉, 서민의 호적은 지방관이 조사·작성하여 호부(戶部)에 보고하고, 양반은 매 3년마다 호주가 자족성원의 구성을 보고하였다¹⁾. 조선시대에는 매 식년(式年)마다 호주가 자족의 신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호구단자를 만들어 이를 관아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관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리와 면별로 오가작통(五家作統)하여 호적대장을 완성하고 이를 상급관청에 보고하였다²⁾.

광양지역의 정확한 인구통계를 추론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많지 않다. 특히 고려시대에 작성된 호구통계에서 광양지역의 인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려시대 성종 2년(983년) 당시의 광양현이 승주목(昇州牧)에 포함되었고, 성종 14년(995년)에 전국의 10도, 4도호부, 8목, 12주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광양지역은 12주의 하나인 승주(현재의 순천시)에 편입된 행정구역과 행정계층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광양지역의 인구를 추정해 보면, 인구규모는 낮아 최하위 행정구역에 속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 발간된 각종의 기록자료에 광양지역의 구체적인 인구규모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시대에는 호구조사가 건국 이래 매우 엄격하게 행해졌다는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인 호구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인보장법(隣保長法), 호구성급규정(戶口成給規定), 호구식(戶口式) 등을 제정하여 호구조사 또는 인구조사에 주력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395년에서 1428년의 호구기록은 부분적인 것 밖에 없으며, 1428년부터 1639년의 약 200년간은 호구기록이 빠져 있다³⁾. 따라서 광양지역에 관한 인구자료 또한 전술한 시기에는 없다. 그렇지만 광양지역의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조선시대에 발간된 각종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전라도편)에 의하면, 광양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1,220명이고, 세대수는 228호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김서전정이유강신박황보 등 10개의 토성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 1) 白麟, 『戶口總數』, 1971. 서울대출판부, 2쪽
- 2) 정덕기, 『조선시대 호구변천의 사회경제사적 연구』, 1985. 『호서사학』 2권, 6쪽



사진1-71 : 호적단자(봉강면 구서리 김응철씨 소장)

- 3) 남영우·서태열 『도시와 국토』, 1995. 법문사, 110쪽

있다. 가구당 평균인구는 5.35명으로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광양지역의 대략적인 인구수와 세대수만을 기록했고, 구체적인 지역(면별)의 자료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광양지역의 구체적인 인구는 조선시대 중기에 발간된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잘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중기인 1760년(영조 36년)에 발간된 여지도서 하권 전라도 광양현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광양현의 가구수는 3,560호이고, 인구는 13,44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에서 남자 6,100명으로 45.4%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7,340명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거주하는 여초현상을 보였다. 특히 여지도서는 광양현의 12개 면별 인구가 수록된 최초의 문헌으로, 면별 인구규모를 보면 <표1-45>에 제시된 것과 같다.

당시 광양현의 면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다압면이 가장 많은 408호이며, 진상면 383호, 우장면⁴⁾ 362호, 인덕면⁵⁾ 337호, 옥곡면 333호, 옥룡면 314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면이 전체 호수의 약 51.2%를 차지하였다. 인구분포 또한 가구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다압면이 1,445명으로 광양현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하였고, 진상면 1,442명, 우장면 1,352명, 인덕면 1,314명, 옥곡면 1,295명, 월포면⁶⁾ 1,2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6개 면의 인구가 8,091명으로 광양현 전체 인구의 약 60.2%를 차지하였다. 한편 가구당 평균 인구수를 살펴보면, 3.78명으로 오늘날의 인구수보다 많았으며,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인구수인 3.78명보다 인구가 많이 분포한 지역을 보면, 월포면 4.55명, 칠성면⁷⁾ 4.00명, 인덕면 3.90명, 진하면 3.93명, 옥곡면 3.89명 등으로 월포면이 가구당 인구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당시의 광양현 인구분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광양읍 일대와 해안 지역에 비교적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고, 이들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 오늘날의 광양읍 일부지역을 의미함

5) 오늘날의 광양읍 일부지역을 의미함

6) 오늘날의 진월면 일부지역을 의미함

7) 오늘날 광양읍의 일부지역을 의미함

<표1-45>

광양현의 면별 가구 및 인구(1759년)

(단위: 호, 인)

구분	우장면	사곡면	골약면	옥곡면	진상면	진하면	월포면	다압면	칠성면	인덕면	며내면	옥룡면
호구수	362	253	304	333	383	273	273	408	72	337	248	314
남자	661	397	506	534	661	554	498	628	138	514	469	540
여자	691	469	503	761	781	519	745	817	150	800	463	631
총인구	1,352	866	1,009	1,295	1,442	1,073	1,243	1,445	288	1,314	932	1,171
가구당 인구수	3.74	3.42	3.32	3.89	3.77	3.93	4.55	3.54	4.00	3.90	3.76	3.73

자료 : 여지도서

여지도서보다 30년 늦게 발간된 호구총서(1789년)는 당시의 광양현 인구수와 호구수가 각 면별로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정조 13년인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의 자료에 의하면, 광양현의 인구는 여지도서(1760년)에 기록된 인구보다 증가하였다. 호구총수(1789년) 제6책인 전라도편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표1-4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광양현의 인구(1789년)는 17,586명이고, 호구수는 3,706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6.1%인 8,102명이고, 여자는 전체의 54.9%인 9,484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광양읍의 일부에 해당하는 인덕면이 421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진상면(404호), 다압면(387호), 옥룡면(382호), 우장면(371호), 옥곡면(329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또한 인덕면이 1,965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인덕면에 거주하였고, 진상면(1,986명), 옥룡면(1,785명), 우장면(1,762명), 월포면(1,640명), 다압면(1,627명) 등지에 인구가 비교적 많이 거주하였다. 반면에 칠성면(206명), 머내면(1,312명), 사곡면(1,084명), 진하면(1,331명), 옥곡면(1,400명) 등지에서는 인구가 적게 거주하였다. 호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4.75명으로 나타났고, 호구당 평균 인구수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는 월포면이 6.3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머내면(5.13명)⁸⁾, 칠성면(5.10명), 골약면(4.89명), 진하면(4.8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광양현의 인구분포를 보면, 오늘날의 광양읍과 봉강면 일대, 그리고 중마동, 금호동 등지의 해안지역, 섬진강 주변의 진월면 일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선시대 중기의 광양지역 인구변화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인구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광양현의 인구는 약 30년 동안 약 4,146명이 증가하였고, 호구수는 146호가 증가하였다. 특히 남녀의 분포를 보면, 지난 30년동안 광양현의 인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1760년 전체인구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6%였는데, 1789년에는 54.9%로 증가하여 여전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거주하는 여초현상의 인구구조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호구당 인구수 또한 1759년의 3.78명에서 30년이 경과된 1789년에는 4.75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호구의 규모가 더욱 커졌고, 대가족화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8) 오늘날 광양시 봉강면 일대를 의미함



전체적인 광양현의 인구분포를 보면, 오늘날의 광양읍과 봉강면 일대, 그리고 중마동, 금호동 등지의 해안지역, 섬진강 주변의 진월면 일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1-46〉

광양현의 면별 호구 및 인구(1789년)

(단위 : 호, 인)

구분	우장면	사곡면	골약면	옥곡면	진상면	진하면	월포면	다압면	칠성면	인덕면	며내면	옥룡면
호구수	371	263	302	329	404	273	258	387	60	421	256	382
남자	759	498	741	663	942	603	767	787	143	875	559	765
여자	1,003	586	737	737	954	728	873	840	163	1,090	753	1,020
총인구	1,762	1,084	1,478	1,400	1,896	1,331	1,640	1,627	306	1,965	1,312	1,787
호구당 인구수	4.75	4.12	4.89	4.26	4.69	4.88	6.36	4.20	5.10	4.67	5.13	4.68

자료 : 호구총수

그리고 1864년에 편찬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지리지에 해당하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의하면, 광양지역의 인구는 15,850명이고, 호구수는 3,460호로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에 수록된 인구 및 호구수가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의 기록보다 적은 것은 당시의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동지지에는 당시의 정확한 광양지역의 관할구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호구총수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1800년대 광양현의 호구수는 대략 3,500여명이고, 약 16,000명에서 18,000여명의 인구가 광양지역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말기에 이르는 약 200여년 간에 걸쳐 정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 교통 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고, 교환경제도 발달하지 못했으며, 토지생산력 또한 빈약하였으며,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천연재해와 질병·전란 등으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광무(光武) 년간에 이르기 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융희년간(隆熙年間)에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는 대략 1,000만명을 약간 웃도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러한 인구추정을 고려하면, 광양지역의 인구 또한 1800년대의 16,000~18,000명 규모에서 약간 증가한 20,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일제시대의 인구와 인구구조

일제시대 초기에는 식민지 경영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매년 인구조사(現住人口調査)를 실시했다. 그리고 1925년 이후에는 5년마다 인구

9) 남영우·서태열 『도시와 국토』1995, 범문사, 111쪽

센서스(당시 國勢調査)가 실시됨으로써 전국의 인구과약이 비교적 정확하게 행해졌다. 인구센서스가 실시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총인구는 1910년 약 1,313만명, 1915년 1,595만명, 1920년 1,692만명으로 인구증가율은 0.8~0.9%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1925년의 인구센서스가 실시되기 전의 전라남도 인구를 보면, 1910년 153.6만명이던 것이 1915년 182.6만명, 1920년 195.9만명으로 1910년부터 1915년동안에는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1915년부터 1920년간에는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¹¹⁾

본격적인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925년부터 1944년까지 일제시대의 광양지역 인구수 및 가구수를 보면, 1925년에는 가구수가 11,010호이고, 인구수는 55,448명이었다. 인구수 중에서 남자는 28,418명이고 여자는 27,030명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거주하는 남초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는 5.0명으로 밝혀졌다. 1930년에는 1925년보다 가구수와 인구수가 각각 증가하여 가구수는 11,735호, 인구수는 58,748명으로 증가하였다. 1925~1930년간에는 가구수가 725호 증가하여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구수는 3,300명 증가하여 연평균 1.2%의 증가를 나타냈다. 1935년에는 세대수가 12,098호, 인구수가 61,769명으로 증가하였다. 1930년부터 1935년 동안에는 가구수가 363호 증가하여 연평균 0.6%의 증가율을 보였고, 인구수는 3,021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0%를 나타냈다. 1940년에는 가구수가 12,208호로 1935년보다 110호 증가하였고, 인구수는 63,511명으로 1935년에 비해 1,742명 증가하였다. 1944년에는 가구수가 12,359호로 1940년에 비해 151호가 증가하였으며, 인구수 또한 64,144명으로 6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남영우·서태열 『도시와 국토』1995. 법문사. 111-113쪽

11)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1983. 1144쪽



사진1-72 : 호구총수

연도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연평균 인구 증가율(%)	전라남도 인구수(A)	B/A (%)
연도	가구수	계(B)			인구수	증가율(%)	인구수(A)	B/A (%)
		남자	여자	계(B)				
1925년	11,010	55,448	28,418	27,030	5.0	-	2,158,513	2.6
1930년	11,735	58,748	29,239	29,509	5.1	1.2	2,332,256	2.5
1935년	12,098	61,769	31,056	30,713	5.1	1.0	2,508,346	2.5
1940년	12,208	63,511	31,488	32,023	5.2	0.6	2,638,969	2.4
1944년	12,359	64,144	31,265	33,879	5.2	0.3	2,747,81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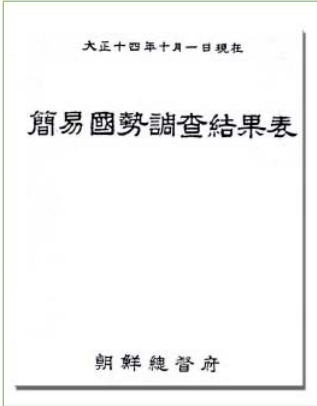


사진1-73 : 1925년 간이국세 조사결과표

<표1-47>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광양지역의 인구수와 가구수는 1925년의 인구센서스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4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25년보다 가구수는 1,349호가 증가하였고, 인구수는 8,696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1925~1930년 사이에 3,3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많은 많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는 인구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가구수의 증가 또한 1925~1930년 사이에 가장 많은 725호가 증가하였지만, 1925년 이후에는 가구증가는 둔화되었다.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는 커다란 변화가 없지만 1925년 5.0명에서 1944년 5.2명으로 증가하여 대가족 중심의 인구구성을 나타냈다. 또한 광양지역의 인구에서 성별 분포를 보면, 1930년의 인구센서스까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광양지역의 인구가 전남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광양지역의 인구는 전라남도 전체 인구에서 약 2.3~2.6%의 매우 적은 규모를 차지하였다. 1925년의 2.6%에서 1944년에는 2.3%로 전남지역에서 광양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였다. 1925년 이후 광양지역의 인구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전남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은 광양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에 기인한다. 즉, 전남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1925~1930년은 2.0%인데 비해 광양지역은 1.2%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1940~1944년의 증가율 또한 0.3%로서 전남(1.0%)에 비해 매우 낮았다.

2.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의 인구 및 인구분포

해방후 1945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와 인구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8.15해방과 국토의 분단, 그리고 6·25동란의 발생은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방과 더불어 해외에서 많은 동포가 귀환하였고, 국토의 분단과 6.25동란의 결과로 북한으로 부터 많은 인구가 남하함에 따라 남한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1960년 이후의 경제개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의 전개 등으로 인구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해방이후 1980년까지 광양지역의 인구수와 가구수는 시기에 따라 약간

의 변화가 있다(<표1-48>, (그림1-40) 참조). 광양지역의 가구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58년 13,080세대에서 1970년 16,223세대로 크게 증가하였고, 1970년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에는 15,058세대가 되었다. 가구수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는 1,577세대가 증가한 1958~1960년과 786세대가 증가한 1974~1976년의 두 시기로 밝혀졌다. 그리고 1970년 이후 광양지역의 가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했던 이촌향도의 인구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라남도의 가구수 증감 패턴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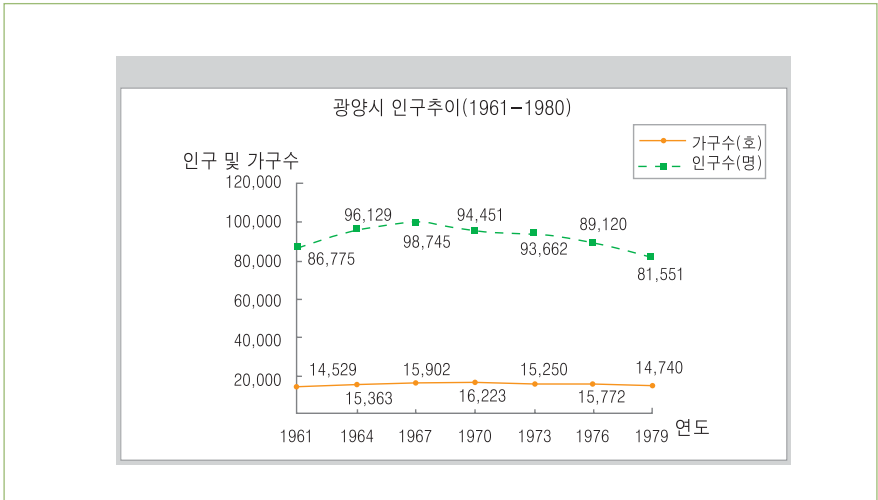
(표1-48) 광양의 가구수와 인구수 변화추이(1949~1980)

연도	가구수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증감 비율(%)
		계(B)	남자	여자			
1949	-	76,153	38,370	37,783	5.2	-	-
1955	-	74,819	36,318	38,501	-	-	-1.8
1956	-	74,655	36,680	37,975	-	-	-0.2
1958	13,080	78,047	38,731	39,316	5.9	184.7	2.3
1960	14,657	87,016	44,069	42,947	5.8	206.0	5.6
1962	15,126	91,763	46,501	45,262	6.0	217.2	2.7
1964	15,363	96,129	49,001	47,128	6.2	227.5	2.4
1966	15,899	98,145	49,963	48,182	6.2	232.5	1.0
1968	15,915	97,719	49,605	48,114	6.1	228.9	-0.4
1970	16,223	94,451	47,814	46,637	5.8	220.5	-3.4
1972	15,582	95,273	48,130	47,143	6.1	222.4	-0.9
1974	14,986	93,384	47,541	45,843	6.2	218.8	-2.0
1976	15,772	89,120	44,901	44,219	5.7	208.7	-4.6
1978	15,001	83,709	41,583	42,126	5.6	195.6	-6.2
1980	15,058	78,696	39,531	39,165	5.0	183.5	-6.1

광양지역의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1949년 76,153명에서 6.25동란이 끝난 1955년에는 74,819명으로 감소하였지만, 1955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1960년에 87,016명이 되었고, 1966년 98,145명, 그리고 1967년 98,74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67년을 정점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 94,451명, 1976년 89,120명, 그리고 1980년 78,696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에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1970년대에는 인구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광양지역의 이러한 인구변화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변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55~66년의 증가율은 2.98%, 1960~65년 2.55%, 1965~70년 2.18% 등으로 1960년대에는 사망률보다 출생

율이 현저하게 높아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성장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높은 자연증가율이 인구성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그림1-40 참조).

〈그림1-41〉 광양지역 인구 변화추이(1961~1980)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나타난 광양지역의 인구변화 특징을 요약하면, 광양지역의 인구는 196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1960년대에는 높은 자연증가율에 의해 인구가 성장한 반면, 1967년을 기점으로 1980년까지 가구수와 인구수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전출자의 초과에 의한 인구이동의 결과이다. 실제로 1960년대의 초반과 중반기는 1950년대 말보다 인구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율이 계속되는 것은 높은 출생율 때문인데 높은 출생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 남아선호사상, 낮은 피임실천율, 그리고 높은 출생율에 따른 가임여성수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¹²⁾. 또한 1967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이촌향도 현상의 결과이다. 즉, 경제적·사회적인 목적에 의해 광양지역의 인구가 인근의 순천과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결과이다.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광양지역 자연증가와 인구이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1-49>와 <표1-50>에 제시된 것 같다. <표1-49>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광양지역에서 출생자수가 사망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특히 1968년에는 출생자수가 사망자수의 약 8.4배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에는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높은 자연

12) 광양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116쪽.

증가율에 의해 광양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전출입자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전입자보다는 전출자자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1976년과 1978년 사이에는 전입자보다 전출자의 수가 급증한 시기로 나타났다. 1978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에서 전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970년대 중반이후 전출자의 급증이 당시의 광양군 인구를 감소시킨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방이후 1980년까지 광양지역 인구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읍·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당시의 광양군 인구는 전체의 약 30%가 광양읍에 거주한 반면 전체의 70%는 면부지역에 거주하였다< 표1-50참조>. 1962년 이후 1980년까지 광양읍은 광양군의 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거주했고, 광양읍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1962년 전체의 29.2%에서 1980년 30.9%로 광양읍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광양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읍이 전체 인구의 30%정도를 차지한 배경은 광양읍이 가진 중심지적 기능 때문이다. 즉, 광양읍이 가진 행정적·교육적 기능 때문에 면단위에 거주한 농촌인구가 광양읍으로 전입하여 전체 인구에서 광양읍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해방이후 1980년까지 광양지역 인구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읍·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당시의 광양군 인구는 전체의 약 30%가 광양읍에 거주한 반면 전체의 70%는 면부지역에 거주하였다.

〈표1-49〉 인구의 자연증가 추이			〈표1-50〉 인구이동의 추이		
연도	출생자	사망자	연도	전입자	전출자
1966			1966	-	-
1968	4,689	560	1968	-	-
1970	4,431	1,255	1970	-	-
1972	2,924	1,015	1972	3,751	4,042
1974	3,050	862	1974	3,791	5,664
1976	3,910	1,547	1976	4,712	8,975
1978	2,375	1,414	1978	6,058	11,018
1980	2,679	1,208	1980	8,426	11,213

반면에 < 표1-50>에 나타난 것과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면부지역의 인구 및 가구수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에 해당하는 면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광양군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즉, 1962년 이후 곽약면과 옥곡면의 인구는 광양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골약면의 경우, 1962년에 광양군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에는 16.6%로서 인구비중이 증가했고, 옥곡면 또한 1962년의 8.9%에서 1980년의 10.1%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진월면과 다압면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지만, 봉강면·옥룡면·진상면은 인구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양군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 또한 감소하였다. 가구수의 변화를 보면, 옥곡면과 골약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읍·면에서 가구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골약면의 가구수는 1962년 2,252호에서 1980년 2,271호로 증가하였고, 옥곡면 또한 1,332호에서 1,408호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전형적인 농·산촌에 해당하는 봉강면·옥룡면·진상면·진월면·다압면은 인구수와 가구수가 감소하였지만, 광양읍과 골약면·옥곡면에서는 커다란 인구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이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로부터의 전입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광양지역의 연령별 인구변화를 보면, 1960년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연령구조의 변동이 나타났다. 즉, 1~14세의 유아 및 아동연령의 구성비는 1970년의 45.79%에서 1975년 43.24%로 그리고 1980년에는 39.04%로 커다란 감소가 나타났다. 15~64세의 연령인구는 1970년의 48.78%에서 1975년 50.99%, 그리고 1980년에는 54.51%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표1-51참조>.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은 1970년의 5.43%에서 1975년 5.77%, 그리고 1980년 6.45%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광양지역의 연령별 인구변화는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족계획과 피임운동의 확산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0~4세의 유아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25~49세의 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0년의 25.77%에서 1975년 26.30%을 증가하였지만 1980년 26.15%로 감소하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청장년층(25~49세)의 인구비율이 감소한 것은 농촌인구의 도시이동과 관련이 있다.

해방이후 1980년까지의 광양지역 인구변화에 관한 전체적인 특징을 개관하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광양의 인구는 높은 자연증가율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이촌향도의 현상과 가족계획 운동의 결과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지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였다. 그리고 인구의 변화



해방이후 1980년까지의 광양 지역 인구변화에 관한 전체적인 특징을 개관하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광양의 인구는 높은 자연증가율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추이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광양읍과 골약면, 옥곡면 등은 인구와 가구수의 감소가 비교적 완만한 반면, 이들 3개 지역을 제외한 면부(面部)에 해당하는 농촌에서는 가구수와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구분	1962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합계	가구수	15,126(100.0)	15,395(100.0)	16,223(100.0)	15,757(100.0)	15,058(100.0)
	인구수	91,763(100.0)	97,423(100.0)	94,451(100.0)	88,662(100.0)	78,696(100.0)
광양읍	가구수	4,762	4,611	4,976	4,943	4,930
	인구수	26,774(29.2)	28,541(29.3)	27,565(29.2)	26,381(29.7)	24,330(30.9)
봉강면	가구수	1,021	1,024	1,044	966	894
	인구수	6,136 (6.7)	6,251 (6.4)	5,946 (6.3)	5,470 (6.2)	4,561 (5.8)
옥룡면	가구수	1,544	1,566	1,621	1,546	1,419
	인구수	9,620(10.5)	10,304(10.6)	9,572(10.1)	8,783 (9.9)	7,457 (9.5)
골약면	가구수	2,252	2,318	2,521	2,326	2,271
	인구수	14,500(15.8)	15,518(15.9)	15,398(16.3)	13,540(15.3)	13,078(16.6)
옥곡면	가구수	1,332	1,396	1,464	1,462	1,408
	인구수	8,130 (8.9)	8,643 (8.9)	8,849(9.4)	8,606 (9.7)	7,929(10.1)
진상면	가구수	1,543	1,635	1,692	1,706	1,459
	인구수	9,601(10.5)	10,386(10.7)	9,943(10.5)	9,818(11.1)	7,348(9.3)
진월면	가구수	1,728	1,761	1,804	1,783	1,744
	인구수	10,859(11.8)	11,206(11.5)	10,764(11.4)	10,047(11.3)	8,901(11.3)
다압면	가구수	1,094	1,084	1,101	1,025	935
	인구수	6,143(6.6)	6,574(6.7)	6,400(6.8)	6,017 (6.8)	5,092(6.5)

자료 : 광양군지편찬위원회, 광양군지

구분	1970	1975	1980
0~14세	43,236(45.8%)	38,287(43.2%)	30,698(39.0%)
15~64세	47,030(49.8%)	45,152(51.0%)	42,852(54.5%)
65세 이상	5,137(5.4%)	5,106(5.8%)	5,076(6.5%)
총인구	94,403(100.0%)	88,545(100.0%)	78,626(100.0)

자료 : 통계청 총인구 및 주택조사 보고, 광양군, 광양통계연보

3. 1980년 이후의 인구 및 인구분포

1) 전체적인 인구와 인구구조 변화

1980년 이후의 광양지역 인구는 광양만권의 공업화와 도시화, 광양제철



2001년말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38,468명으로 1981년 이후 59,990명이 증가하여 전남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소의 입지와 준공, 광양제철소의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 광양컨테이너부두의 개장, 그리고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행정통합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광양지역의 인구가 다른 중소규모의 농촌도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입인구에 의한 사회적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광양지역의 인구증가는 광양제철소의 개발과 준공, 그리고 광양컨테이너부두의 개항 등 지역개발사업의 결과이다. 특히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광양지역의 인구는 전남의 24개 시군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1년말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38,468명으로 1981년 이후 59,990명이 증가하여 전남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2001년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양시는 전라남도 전체 인구(2,104,052명)의 약 6.58%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수(세대수)는 43,176세대로서 전남 전체의 약 5.92%를 점하고 있다. 광양시의 인구가 전남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많지 않지만, 인구밀도를 지표로 살펴보면 광양시(310.4명)는 전남(175.4명)에 비해 약 1.77배가 높아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지난 20여 년간의 광양지역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표1-5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구수와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광양시 가구수는 1981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은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이 주요 원인이며,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전입가구 증가도 부차적인 원인이다. 가구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1981년 광양의 가구수는 14,917세대에서 1986년 23,203세대로 약 1.6배 성장하였고, 1990년에는 32,125호로 증가하였다. 1981년 이후 10년동안 광양의 가구수는 약 17,208세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 39,291세대, 2001년에 43,176세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 1981년이후 가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3개 시기로서, 1990~1991년의 4,339세대, 1984~1985년의 3,165세대, 그리고 1988~1989년의 3,147세대로 밝혀졌다.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들 3개 시기는 모두 광양제철소의 준공과 설비증설, 행정구역의 개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1-41참조).

한편, 인구수는 1981년 78,478명에서 1986년 111,731명, 1990년 155,558명, 1996년 131,306명, 그리고 2001년 138,468명으로 지난 20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인구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광양제철소의 건설공사와 설비준공에 힘입어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인구는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인구성장은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1991년에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였다. 즉, 1990년의 155,558명에서 1991년에는 126,680명으로 28,878명이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1991년 이후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이후의 인구증가는 광양컨테이너부두의 건설공사와 제1단계 부두개발의 완공, 초남공단·태인공단·신금공단 등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의 지역개발 사업의 결과이며, 향후 전개될 광양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광양컨테이너부두의 시설투자, 그리고 광양항 배후부지의 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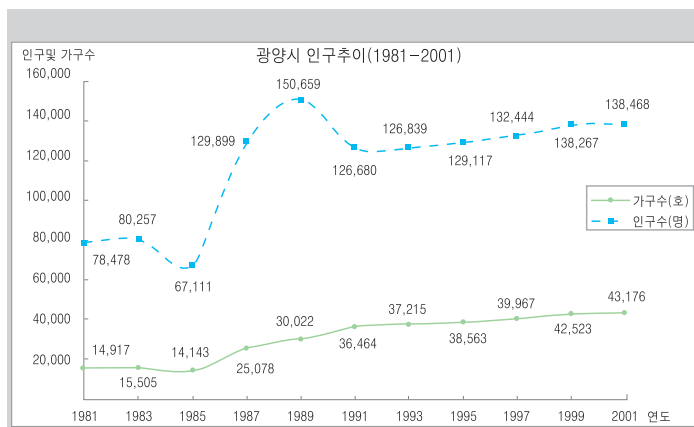
(표1-53) 광양의 가구수와 인구수 변화 추이(1981~2001)

연도	가구수	인구수			세대당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증감 비율(%)
		계	남자	여자			
1981	14,917	78,478	39,224	39,254	5.3	183.6	-
1983	15,505	80,257	40,865	39,392	5.2	187.0	1.13
1986	23,203	111,731	60,329	51,402	4.8	195.6	13.1
1988	26,875	139,404	76,076	63,328	5.2	205.2	12.4
1990	32,125	155,558	86,051	69,507	4.8	325.7	5.8
1992	37,770	128,445	66,160	62,285	3.4	290.6	-8.7
1994	37,719	127,783	65,438	62,345	3.4	289.0	-0.3
1996	39,291	131,306	67,208	64,098	3.3	296.2	1.4
1998	41,915	136,910	70,012	66,898	3.3	307.1	2.1
2000	42,670	138,097	70,449	67,648	3.2	309.6	0.4
2001	43,176	138,468	70,634	67,834	3.2	310.4	0.1

자료 : 광양군, 광양시, 통계연보.

1981년 이후 광양지역 인구변화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는 3개 시기로서 제1기는 1985~1986년, 제2기는 1986~1987년, 그리고 제3기는 1988~1989년이다. 제1기에서는 20,394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인구변화를 나타낸 시기로서 광양제철소의 개발, 동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광양지구출장소'의 설치, 그리고 동광양지역에서 전개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이주단지 조성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입인구의 증가가 인구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2기에서는 18,168명이 증가하였고, 제3기에서는 11,255명이 증가하였다. 인구증가가 1990년 이전에 집중된 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광양제철소의 건설사업, 동광양지구의 신시가지 조성 및 택지개발 등과 연관성이 높다.

〈그림1-42〉 광양지역 인구변화 추이(1981~2001)



그러나 광양의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1991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1년 1년 동안에 전체 인구의 22.8%에 해당하는 28,878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인구통계의 조사가 1991년 이전에는 상주인구조사인 반면, 1991년부터는 주민등록조사로 변경된 요인도 있지만, 1992년 광양제철소 제4기 종합준공을 앞두고 건설경기가 일단락되면서 건설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¹³⁾. 1990년에서 1991년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광양제철소의 종합준공에 따른 건설관련 인구의 이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의 광양지역 인구추이에서 인구증가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그림1-42)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자연증가율에 의한 인구증가는 15,646명인 반면, 타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을 포함한 사회적 증가는 43,816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협력회사와 연관단지 종사자 17,240명의 약 2.54배에 해당되며, 그 구성인구를 보면 상업과 행정 등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와 그 부양가족의 인가로 추정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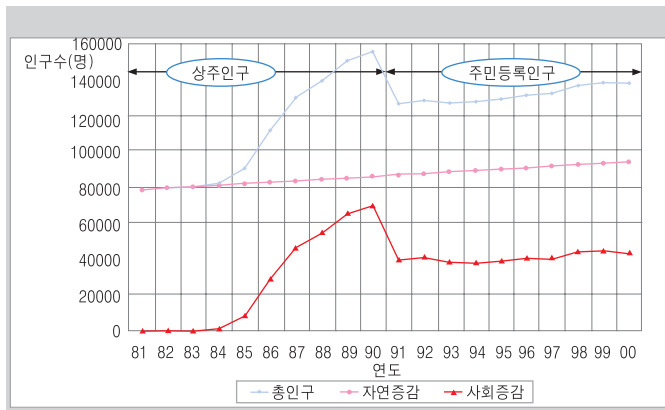
(그림1-42)과 관련시켜 1981년부터 2001년까지의 광양지역 인구가동을 전출자와 전입자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지난 21년 동안 광양지역에서 전출한 인구의 총수는 336,684명이고, 전입한 인구의 총수는 333,057명으로 추계되었다. 광양지역의 인구는 지난 198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그림1-43참조). (그림

13) 유성중, 2002. <철강산업의 입지에 의한 지역변화: 광양 지역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73쪽.

14) 유성중, 2002. 앞의 논문,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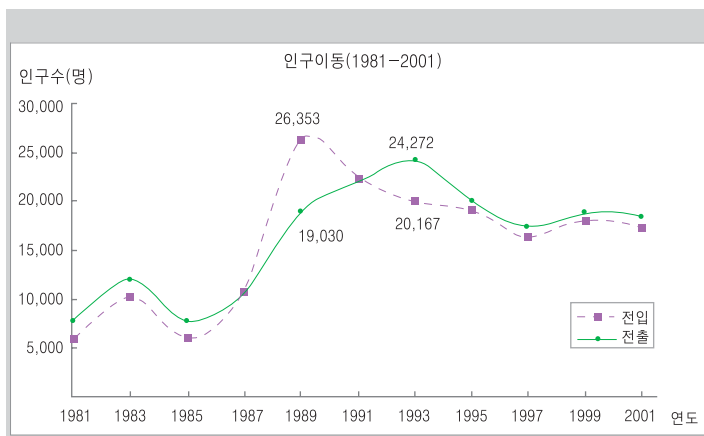
1-4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것은 수도권외의 도시와 지방대도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과 유사하다. 한편,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전입초과가 나타난 시기는 1986년(+3,146명), 1989년(+7,323명), 1990년(+2,992명), 1991년(+281명), 1994년(+1,432명), 1996년(+104명), 1998년(+2,790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43〉 광양지역 인구변화의 요인별 특성(1981~2000년)



(그림1-4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입자와 전출자의 규모는 연도에 따라 약간씩 상이했지만, 인구이동의 경향은 대략 세가지 패턴을 나타냈다.

〈그림1-44〉 광양지역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인구이동(1981~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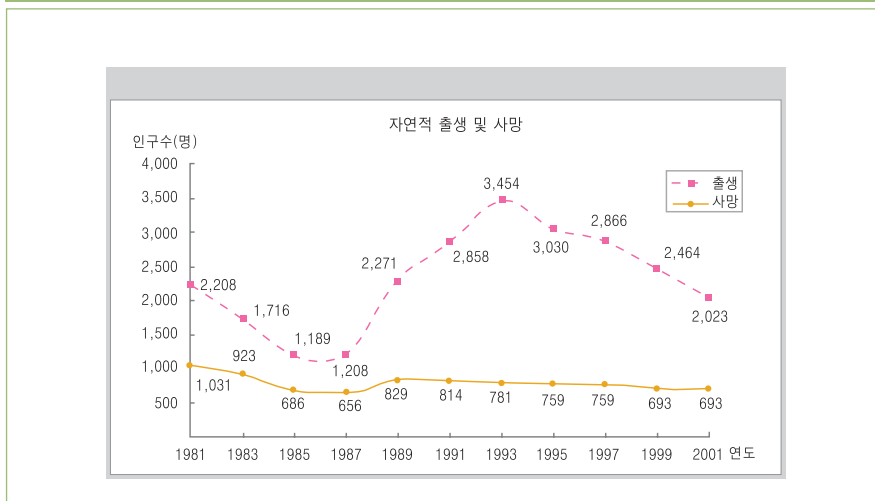


노령인구의 증가는 전남의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전남의 다른 시군에 비하면 노령인구의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즉,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 전출인구 우세기,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전입인구 우세기, 1995년 이후의 전입·전출인구가 서로 비슷한 복합기가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전출초과현상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전입초과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1989~1994년의 전입인구 초과현상이 지역의 인구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년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1970년대와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 0~14세의 연령집단은 1986년 전체의 27.4%에서 1997년 26.7%, 그리고 2001년 26.4%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15~64세의 연령집단 또한 1986년 67.6%, 1997년 67.1%, 2001년 66.6%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86년 67.6%에서 1993년 64.4%로 크게 감소한 것은 1991년의 인구감소, 즉 광양제철소의 준공이후 건설인력과 관련된 유동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의한 결과이다.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0~14세, 15~64세 연령집단의 지속적인 감소와는 달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6년 5.0%에서 1993년의 8.2%, 1997년의 6.2%, 그리고 2001년의 7.0%로 증가하였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전남의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전남의 다른 시군에 비하면 노령인구의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그림1-44 참조).

(그림1-45) 광양지역 인구의 자연증가 변화(1981~2001)



구분	1986	1993	1997	2001
0~14세	30,630(27.4%)	35,605(27.4%)	35,701(26.7%)	36,482(26.4%)
15~64세	81,101(67.6%)	83,622(64.4%)	88,402(67.1%)	92,034(66.6%)
65세이상	5,604(5.0%)	10,562(8.2%)	8,185(6.2%)	9,722(7.0%)
총 계	111,731(100.0%)	129,789(100.0)	132,288(100.0)	138,238(100.0)

주) 외국인 제외한 수치임 / 자료출처 : 광양군, 동광양시, 광양시, 해당년도 통계연보

2) 읍면별 인구분포 및 인구구조의 변화

2001년말 현재 광양시의 인구를 광양읍, 동광양지역, 그리고 면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양읍에는 전체 인구의 29.4%인 40,701명이 거주하고 있고, 동광양지역(洞部지역)에는 전체의 54.1%인 74,956명, 그리고 면부지역에는 22,811명인 16.5%가 거주하고 있다. <표1-55>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지역별 인구변화는 1981년 이후 커다란 차이가 있다. 광양지역에서 광양읍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은 1981년 31.6%에서 1991년 33.6%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29.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동광양지역의 인구비율은 1991년 52,492명(41.5%)에서 2001년 74,956명(54.1%)로 크게 증가하였다. 옥룡면과 봉강면을 비롯한 면지역의 인구는 1981년 53,699명(68.4%)에서 1991년 31,580명(24.9%), 2001년 22,811명(16.5%)로 감소하였다. 면부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인구의 노령화,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 등에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동광양지역의 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1981년에는 광양읍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했지만, 1991년부터는 동광양지역의 인구분포가 가장 많아 광양지역의 인구중심이 광양읍에서 동광양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동광양지역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구분	지역	1981	1991	2001
가구수	동광양 지역(동부)	-	17,223(47.2%)	22,428(52.0%)
	광양읍 지역(읍부)	4,882(32.7%)	11,295(31.0%)	13,004(30.0%)
	면 지역(면부)	10,035(67.3%)	7,946(21.8%)	7,744(18.0%)
	합 계	14,917(100.0%)	36,464(100.0%)	43,176(100.0%)
인구수	동광양 지역(동부)	-	52,492(41.5%)	74,956(54.1%)
	광양읍 지역(읍부)	24,779(31.6%)	42,608(33.6%)	40,701(29.4%)
	면 지역(면부)	53,699(68.4%)	31,580(24.9%)	22,811(16.5%)
	합 계	78,478(100.0%)	126,680(100.0%)	138,468(100.0%)

자료 : 광양군, 광양시, 통계연보

가구수의 분포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양읍의 가구수는 1981년 4,882세대, 1991년 11,295세대, 2001년 13,004세대로 1981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동광양지역은 1991년 17,223세대에서 2001년 22,428세대로 증가하였다. 면지역은 1981년 10,035세대에서 1991년 7,946세대, 2001년 7,744세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인구수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동광양지역에 전체의 54.1%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 광양읍의 인구변화



광양제철소가 입지한 동광양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 광양읍은 광양지역의 행정과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동광양지역 중심의 신도시 개발, 광양시청의 이동, 그리고 광양시 경제의 동광양지역으로의 이동 등으로 광양읍이 수행했던 중심지적 기능 또한 동광양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인구와 가구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사진1-74 : 최장수 도순심 할머니
(1899년생 · 105세 · 광양읍 도청마을)

〈표1-56〉 광양읍의 가구수와 인구수 변화(1981~2001)								
구 분	1981년	1985년	1988년	1990년	1991년	1995년	1998년	2001년
가구수(A)	4,882	6,399	9,389	11,272	11,295	11,560	12,402	13,004
A/C(%)	32.7	33.4	34.9	35.1	31.0	30.0	30.0	30.0
인구수(B)	24,779	29,207	40,136	47,499	42,608	39,934	40,260	40,701
B/D(%)	31.6	32.2	28.8	30.1	33.6	31.3	29.1	29.4
총가구수(C)	14,917	19,159	26,875	32,125	36,464	38,563	41,915	43,176
총인구수(D)	78,478	90,797	139,404	155,558	126,680	129,177	136,910	138,468

광양읍의 인구는 198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광양읍의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전반기에는 성장한 반면, 후반기에는 감소와 성장의 둔화 및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수 변화와 함께 광양지역에서 광양읍이 차지하는 인구비율 또한 변화했는데, 1981년을 기준으로 2001년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광양읍은 광양제철소의 입지과정 초기에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1980년대에는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였다. 특히 광양읍은 1981~

1990년 동안 공단 관련인구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2배 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였고 1990년에는 47,499명이 거주하여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1년의 인구급감 현상으로 광양읍에서도 4,891명이 감소하였다. 1991년 이후 동광양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광양지역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에 기인하며 광양읍이 제철소의 2단계 배후도시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던 광양읍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¹⁵⁾.

당초 1980년대 초반 제철소직원들의 거주단지를 광양읍 도월리 일대와 골약면 정산마을 등으로 결정하려다 주민들과의 지가협상 결렬로 현재의 제철단지 내에 입지가 결정된 것은 지역발전에 크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제철소와 원주민들 사이에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광양지역 고용인원의 상당수가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우세한 광양읍 인근의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¹⁶⁾.

반면에 광양읍의 가구수는 198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수는 증가하지만, 광양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32.7%에서 2001년 30.0%로 감소하였다. 인구수와 마찬가지로 1990년에는 광양시 전체의 35.1%를 차지하였지만, 그 이후 감소하였다. 1981년 이후 가구수는 증가하지만, 광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세대당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1991년 가구당 3.8명에서 2001년 3.1명으로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 동광양지역의 인구변화

동광양지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198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광양지역중에서 인구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지역에 해당한다. 동광양지역은 광양제철소의 건설, 신시가지의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광양컨테이너부두의 건설공사 등으로 가구수와 인구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광양읍과 면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동광양으로 많은 인구가 전입함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동광양지역 인구는 변화하였다.

15) 유성중, 2002, 앞의 논문, 76-77쪽

16) 유성중, 2002, 앞의 논문, 77쪽



동광양지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198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광양지역중에서 인구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지역에 해당한다.



1985년부터 제철소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광양 제철소 임직원들의 이주, 연관 단지의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서 광양지역의 인구는 1984년 12,561명에서 1990년 70,118명으로 6년 동안 연평균 76.4%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상주인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가 입지한 지역인 만큼 제철소의 입지과정에 따른 일련의 사안에 따라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철소의 입지가 확정된 1981년말 13,078명이었던 인구수는 1982년 2월 도로개설을 위한 기반공사가 시작되면서 1년만에 1,000여명이 증가하였고 제철소 부지조성 사업으로 인한 금호도 이주 대상 주민 304세대가 신이주단지인 옥곡면 광영으로 집단이주를 완료한 1983년에는 1,700여 명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85년부터 제철소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광양 제철소 임직원들의 이주, 연관단지의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서 동광양지역의 인구는 1984년 12,561명에서 1990년 70,118명으로 6년 동안 연평균 76.4%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상주인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1991년 한해동안에는 17,626명이 감소하여 광양시 전체 감소인구의 61.0%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광양지역의 인구가 당시 광양지역 전체인구의 41.4%에 불과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 지역이 건설근로자의 유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2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4.9%의 높은 성장률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광양읍 지역의 정체현상과 면지역의 감소추세를 크게 상쇄하여 광양시 전체인구의 완만한 상승을 주도했다. 이는 광양제철소가 종합 준공된 이후 1995년 도농 통합도시의 시청사가 구동광양시 지역으로 확정되고 동광양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안정되면서 외지 유입인구가 늘어났고 광양읍과 면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역시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1997년 컨테이너부두의 1단계 준공과 계속되는 건설과정도 인구유입을 가속화시켰다¹⁷⁾.

한편 동별 가구 및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황금동과 성황동이 합쳐진 골약동, 태인동, 광영동은 가구수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금당동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반면에 중마동은 가구수와 인구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태인동의 경우 1988년 8,571명에서 2001년 3,477명으로 약 59.4% 감소하였고, 골약동 또한 1988년 7,465명에서 2001년 3,031명으로 약 50%이상 감소하였다. 동광양지역 최초의 이주단지였던 광영동은 1990년까지는 인구가 성장했지만 1998년까지는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사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금당동은 1988년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수는 증가하였지

17) 유성중, 2002, 앞의 논문, 75~76쪽

만, 인구수는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골약동과 광영동에 비하면 인구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1981년	1985년	1988년	1990년	1995년	1998년	2001년
합계	가구수	2,269 (15.2)	5,016 (26.2)	9,792 (36.4)	13,064 (40.7)	19,263 (50.0)	21,655 (51.7)	22,428 (52.0)
	인구수	13,211 (16.7)	23,686 (26.1)	61,235 (43.9)	70,118 (45.1)	56,357 (43.6)	71,481 (55.2)	74,956 (54.1)
골약면	가구수	2,269 (15.2)	2,114 (11.0)					
	인구수	13,211 (16.7)	10,524 (11.6)					
태금면	가구수		1,198 (6.3)					
	인구수		5,741 (6.3)					
골약동	가구수			1,276 (4.7)	1,288 (4.0)	1,265 (3.4)	1,151 (2.6)	1,043 (2.4)
	인구수			7,465 (5.4)	7,553 (4.9)	4,382 (3.9)	3,617 (2.6)	3,031 (2.2)
중마동	가구수			1,441 (5.4)	2,355 (7.3)	5,004 (13.1)	7,786 (18.6)	9,915 (23.0)
	인구수			11,267 (8.1)	13,312 (8.6)	10,257 (8.2)	25,517 (18.6)	33,534 (24.2)
광영동	가구수		1,704 (8.9)	2,932 (10.9)	3,908 (12.2)	5,403 (14.0)	5,530 (13.1)	4,888 (11.3)
	인구수		7,421 (8.2)	13,387 (9.6)	18,695 (12.0)	16,995 (13.6)	17,411 (12.7)	15,053 (10.9)
태인동	가구수			1,129 (4.2)	1,683 (5.2)	1,239 (3.2)	1,302 (3.1)	1,127 (2.6)
	인구수			8,571 (6.1)	9,640 (6.2)	4,293 (3.8)	4,161 (3.0)	3,477 (2.5)
금당동	가구수			3,014 (11.2)	3,830 (11.9)	6,352 (16.5)	5,886 (13.9)	5,455 (12.7)
	인구수			20,545 (14.7)	20,918 (13.4)	20,429 (16.2)	20,775 (15.2)	19,861 (14.4)

자료 : 광양군, 광양시,

반면에 동광양지역의 새로운 중심시가지로 기능하고 있는 중마동의 경우, 가구수는 1988년 1,441세대에서 2001년 9,915세대로 약 7배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 이후 세대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은 중마동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광양시청의 이전과 관련이 깊다. 인구수 또한 1988년의 11,267명에서 2001년 33,534명으로 약 3배의 증

가가 나타났다. 현재 중마동이 광양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2%로 광양읍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 면지역의 인구변화

광양시에서 인구와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이 바로 면지역에 해당한다. 광양시의 면지역 인구는 198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남의 여타지역과 다를 바 없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의 전출자들은 전남내로의 이동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와 구동광양시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면지역의 인구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가구수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 인구수는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면지역의 이러한 변화는 세대당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소년 및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출한 반면, 노령인구는 계속해서 세대를 구성하며 잔존하기 때문에 가구수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봉강면, 옥곡면, 진상면은 1981년보다 2001년의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표1-58참조 > .

광양시의 모든 면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경험했다. 1981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율을 살펴보면, 다압면이 가장 많은 53.0%가 감소하였고, 옥룡면 48.3%, 진월면 46.1%, 진상면 41.7%, 봉강면 39.3%, 옥곡면 34.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면에 비해 옥곡면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광양제철소의 입지로 광양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지역내의 면지역의 인구는 광양읍 및 동광양지역과는 상이하게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면부지역의 인구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영향도 있지만, 광양읍과 신도시에 해당하는 동광양으로 지역내의 인구가 이동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면지역의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1981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면지역의 인구변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가구수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 인구수는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표1-58〉 면별 가구수 및 인구수의 변화(1981~2001)

구 분		1981년	1985년	1988년	1991년	1995년	1998년	2001년
봉강면	가구수	889	880	885	921	937	939	934
	인구수	4,496	3,926	4,117	3,634	3,222	3,011	2,726
옥룡면	가구수	1,404	1,316	1,323	1,345	1,326	1,350	1,330
	인구수	7,264	6,437	6,404	5,307	4,453	4,101	3,754
옥곡면	가구수	1,400	3,275	1,502	1,725	1,583	1,616	1,532
	인구수	7,532	14,730	7,985	6,944	5,808	5,543	4,912
진상면	가구수	1,435	1,525	1,460	1,487	1,444	1,504	1,479
	인구수	7,446	7,552	7,379	5,916	5,072	4,742	4,344
진월면	가구수	1,720	1,675	1,666	1,666	1,655	1,645	1,627
	인구수	8,773	8,160	7,772	6,668	5,747	5,329	4,726
다압면	가구수	918	867	858	802	795	804	842
	인구수	4,997	4,520	4,376	3,111	2,585	2,443	2,349

3) 2002년 광양시의 인구분포와 현황

2003년말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44,388명으로 전남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77,486명으로서 전체의 53.7%이고, 여자는 66,902명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시의 남자인구는 전남의 평균(49.8%)보다 월등하게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광양시에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거주하는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 이러한 특징은 기업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속성에 해당한다. 광양시의 가구수는 44,373세대로서 전남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전체에서 광양시가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구수의 비율보다 높은 것은 광양시의 세대구성이 노령인구 중심이 아닌 유소년 연령인구를 포함한 부양인구가 있는 세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인구구성은 향후 광양시의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말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44,388명으로 전남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표1-59〉 광양시의 인구분포(2003) (단위 : 명, 세대, %)

구 분	인구총계	남자인구	여자인구	가구(세대)
광양읍	42,309(29.3)	21,255	21,054	14,069(31.7)
봉강면	2,727(1.9)	1,431	1,296	954(2.2)
옥룡면	3,486(2.4)	1,767	1,719	1,358(3.1)
옥곡면	4,601(3.2)	2,336	2,265	1,534(3.5)
진상면	4,069(2.8)	2,046	2,023	1,500(3.4)
진월면	4,451(3.1)	2,283	2,168	1,626(3.7)
다압면	2,290(1.6)	1,150	1,140	872(2.0)
골약동	17,862(12.4)	1,498	16,364	1,065(2.4)

구 분	인구총계	남자인구	여자인구	가구(세대)
중마동	23,937(16.6)	16,901	7,036	10,011(22.6)
광영동	8,973(6.2)	7,445	1,528	4,958(11.2)
태인동	10,587(7.3)	1,660	8,927	1,115(2.5)
금호동	19,096(13.2)	10,169	8,927	5,311(12.0)
광양시 총계(A)	144,388(100.0)	77,486	66,902	44,373(100.0)
전라남도 인구(B)	2,024,422	1,007,384	1,017,038	737,207
A/B(%)	7.1	6.9	7.3	6.0

자료 : 전라남도 통계과 내부자료, 2003.

광양시의 인구분포를 지역별로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광양읍이 전체의 29.3%인 42,309명이 분포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중마동 23,937명(16.6%), 금호동 19,096명(13.2%), 광영동 8,973명(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 등 4개의 행정구역에 광양시 전체 인구의 약 65.3%가 거주하여 인구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특히 봉강면(1.9%), 옥룡면(2.4%), 다압면(1.6%) 등은 인구분포가 매우 희박한 지역이다.

가구수의 분포 또한 인구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광양읍이 14,069세대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마동(22.6%), 금호동(12.0%), 광영동(11.2%) 등의 순이다. 특히 면부지역의 가구비율은 전체의 17.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말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광양시 인구분포의 특징을 종합하면, 광양시의 인구는 광양읍과 동광양의 중마·광영·금호동에 밀집하여 인구분포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인구분포는 향후 광양시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고려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2절 주택·건설

1. 주택의 종류

집 즉 주택은 집을 짓는 방식이나 형태에 있어서 민족이나 사회집단마다